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6월 13일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식료공장, 창성각과 창성국수집, 은덕원, 창성혁명사적관, 창골혁명사적지, 창성군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건 현대화된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작업반, 술작업반, 당과작업반, 산과일작업반, 제품진렬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지난해 산열매들을 얼마나 따들였는가를 알아보고 도토리, 다투, 머루 등 산열매들을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에서 생산한 술과 탄산단물, 줄임, 단묵, 간장, 된장 등을 보시고 대단하다고, 중앙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에 못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체로 살아나갈데 대한 우리 당방침의 정당성을 실증해주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식료공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관심은 각별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종업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생산증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각과 창성국수집, 은덕원, 음식재지를 돌아보시면서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식지봉을 이고 마추 일떠선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용능력은 얼마이고 원자재보장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군의 로리사들이 전국로리추진에서 1등을 하였다는 보고를 들어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자면 로리추진을 더욱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의 종업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고 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은덕원을 돌아보시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더 훌륭히 개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음식재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력석회의 50돐을 맞으며 새로 꾸린 군소재지를 부감하고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잘 건설했다고 치하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을 최대한 발동하여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는것과 같이 자기 군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기 지방의 얼굴이 있고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매 군들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일떠세우고 중앙과학기술보급기지과 망으로 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공헌을 내짚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혁명사적관과 창골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창성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땅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나라 반일민중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욱을 길이 전하여주는 혁명사적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사적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적이 가장 많이 어려있는 창성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러 창성땅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성혁명사적관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창골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비와 옛 모습 그대로 서있는 학정건물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골혁명사적지에서 사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군 문화회관을 돌아보시고 군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관의 내부와 현관에 비치된 다양한 교양자료들을 돌아보시면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창성군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예술소조원들은 공연무대에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평도자》, 설화와 합창 《수령님 같이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인민사랑의 노래》, 대화시 《절세위인들과 창성》, 혼성2중창과 합창 《오늘의 창성》, 가야금병창과 합창 《황금산타령》, 이야기와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 남성독창과 합창 《인생의 영광》, 녀성중창 《감사의 노래》, 기타병창이야기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가무이야기 《즐거운 방목길》, 선동극 《우리의 총대는 용서하지 않으리》, 합창시와 합창 《한마음 따르렵니다》,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를 올렸다.

날로 개화발전하는 창성군의 군중문화예술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잘 보여준 공연은 합창 《불타는 소원》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성군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겠다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적, 혁명적사적 맥박지는 창성땅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모든 군들을 인민들의 행복의 락원으로 꾸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창성군 예술소조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신 다음 공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생전에 공장의 개건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마음을 안고 공장을 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공장락아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문화회관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신 다음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종합지령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컴퓨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정제기름, 맛내기, 정제소금, 비타민E생산공정과 포장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설비들의 특성과 능력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간장, 된장, 맛내기, 기름, 비타민E, 레시틴 등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되 해당 부문에서 원료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자도서실과 과학기술도서실에 들리시어 선진기술보급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새로 건설한 목욕탕, 수영장, 미용실, 리발실, 음악감상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편의후생시설들을 잘 꾸렸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이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룡라인민체육공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새로 건설된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교실과 침실, 목욕탕,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과 관리운영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구발전추세를 알수 있도록 전자다매체편집물을 비롯한 특화된 집물도 늘 볼수 있게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전망성있는 축구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룡라인민체육공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룡라인민체육공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계획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룡구장, 지상호케이스장, 로라스케트장, 로라스케트유희장을 돌아보시면서 최근 평양시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중체육봉사자들이 많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수 있는 거점들이 마련된 결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체육공원의 료화정형도 알아보시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는것을 비롯하여 주변환경정리를 더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새로 개건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국청사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룡라인민체육공원의 관리운영을 잘하여 나라의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게 하되 적극 불어라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사설

## 6.15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자

오늘은 6.15공동선언 발표 13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돌이켜보면 2000년 6월 나라가 갈라져 55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우리민족끼리협력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삼천리강토를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꿇어 한 민족사적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서로 갈라져 대결하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준 6.15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민족의 주체적 힘, 대단결의 위력으로 하루빨리 이루할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게 되었다.

6.15가 있음으로써 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반목과 불신을 가지고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통일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

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끊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외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연합기운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면적대인 통일운동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조국통일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본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 의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선군정치로 닦쳐드는 전쟁위험을 막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으며 력사적인 평양상

봉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상봉의 뜻깊은 나날들에 회담을 정력적으로 헌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 협력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고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자주통일에 대한 심신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마련하시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실로 온 겨레가 지지하고 받드는 민족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신 고 자주통일시대를 이끌어오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함으로써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최근 공화국은 미국과 그에 추

종하는 남조선의 동족대결세력의 책동으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되살리고 대결과 전쟁으로 질주하는 조선반도정세를 완화와 대화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취지에서 대담하고 성의있는 중재립장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북과 남사이에 수년만에 처음으로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북남당국회담이 곧 열리게 되어 대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크게 고무하였다. 그러나 북남당국회담의 개최를 바라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오만무례한 대결망정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게 된 북남당국대화는 무산되고 정세는 또다시 예측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현실은 《대화》니, 《신회》니 하는 남조선당국의 말이 한갓 기만에 불과하고 북남관계를 파산으로 몰아온 동족대결정책이 현 남조선 《정권》하에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랄해졌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변함없는 동족대결정책이야말로 현시기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동족사이에 불신을 증대시키며 전쟁을 몰아오는 화근이 아닐수 없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대결시대를 끝없이 이어가려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인 대결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는 자주통일의 기치,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이것을 떠나, 이것을 부정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남공동선언들은 7.4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남공동선언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통일을 넘넘하는 우리 민족모두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범위에서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겨레가 단결하여 통일운동에 떨쳐나설 때 통일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갈수 있다.

이번에 북과 남의 통일운동단체들이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3돐을 맞으며 진행하려고 한 북남공동통일행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통일열망을 반영한 순수한 통일행사의 의의를 《남남갈등을 노린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시비충상하다 못해 종당에는 북남당국회담도 실현되지 못하게 하고 북남통일행사를 이루어질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남조선당국은 남조선의 진보단체들과 통일운동세력을 《중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살벌한 탄압의 광기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가로

막고 6.15지지세력을 말살하려는 범죄적책동의 산물이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 연합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반통일파적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하신 연설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수 있을것을 천명하시어 통일운동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절세위인을 모시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앞길을 밝혀주시어 우리 민족끼리도 똘똘한 겨레의 억센 힘이 있어 비록 오늘의 엄중한 장애와 시련은 있어도 자주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 6 월 과 더 불 어 빛 나 는 불 멸 의 업 적

이 땅에 또다시 6월이 왔다. 2000년 6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에서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 겨레에게는 그날에 느꼈던 환희와 기쁨이 어찌런듯 생생히 안겨온다.

전세계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진 속에 진행된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겨레의 통일열망과 숙원을 그대로 반영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시어 온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세계를 놀라우시였다.

국제관계사에는 무수한 수뇌상봉들과 회담들이 기록되어있지만 평양수뇌상봉처럼 온 세계에 커다란 파문과 격진을 불러일으킨 상봉, 것처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회담을 알지 못한다.

정치, 사상,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지역의 북남수뇌회담, 처음부터 남측에서 《만나는것자체가 성과》라고 할 정도로 그 결실을 예측할수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있던 이러한 회담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에 합의된 본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사리정연한 론리, 애국애족의 주장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고자 하는 조국통일의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저희들 비전향장기수문제와 출어인 가족, 친척방문단교환문제 등 인도적문제해결과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포괄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북남수뇌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이라는 민족사적사변이 이루어진 시간은 불과 2박3일, 더 정확히는 55시간이었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유구한 우리 민족사는 더 말할것도 없고 장장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민족분열의 역사를 놓고보아도 55시간이란 그야말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사상과 고결한 품도, 뜨거운 동포애로 분별 55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의



6. 15 북 남 공 동 선 언 에 서 명 하 시 는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장 군 님

주제 89(2000)년 6월

순간순간을 성공의 절정으로 이끄시어 자주통일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20세기의 절반은 망국으로 잃었고 또 절반은 분열로 잃었다. 말 그대로 수난과 비운의 한세기였다.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2000년에 우리 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발표라는 민족사적사변으로 세기의 통장훈을 불렀다.

북남공동선언채택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의 길로 이끄시어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적이 창공을 날리는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국제관계사에는 어렵게 이루어졌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종이장우의 약속》으로 된 실례가 적지 않다.

조선반도에서 울려퍼진 6.15공동선언을 달가와하지 않은 내외

반통일호전세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호를 가로막으려고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누르시면서 북남관계를 6.15의 궤도에서 기운차게 전진시켜나가는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의 조항을 실천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꿈결에도 그리워하던 조국의 품에 기어이 안기게 해주신분도 장군님이시다. 통일애국의 신념을 지켜 청춘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장그리 바친 우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신 그이의 따사로운 사랑이 있어 《숨쉬는 교목》이라 불리우던 우리 모두가 조국의 품에 안겨 오늘까지 행복의 절정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우리뿐만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묻지 않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로 내세워주신 그이의 대해같은 포용력과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수십년동안 남조선사회에 반공, 반북대결의식만을 고취해오던 보수언론사대표들을 포함한 언론사대표단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민족의 한 성원,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도록 일깨워주시기도 하시고 북남수뇌상봉관계자들을 비롯한 남측인사들에게 동포애의 정이 담긴 철보산송이버섯선물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제2차 북남상급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을 만나시어는 상급회담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리행하고 신의와 협력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협의, 실천해나가는 북남당국사이의 중실협의체로서의 사명을 원만

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넓은 전망도 열어주시였다.

하여 공동선언발표후 21차에 걸쳐 이루어진 상급회담과 10여 차례에 달하는 회담과 접촉, 교류, 공동행사 등에서 민족의 통일지향을 반영한 좋은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 민족통일대추진, 북과 남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교육자를 비롯한 각계층의 통일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고 개천절 기념민족공동행사, 6.15민족통일대추진을 비롯한 통일행사들이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과 기대속에 민족의 통일년됨을 고조시켰다.

근 반세기이상 묻혀있던 지뢰들을 날려보내며 삼천리강토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철

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바다와 하늘에서 쌍방의 선박들과 항공기들이 직선항로를 따라 오가는 경이적인 사변도 련이어 펼쳐졌다.

6.15가 펼쳐준 민족화해와 단합의 거대한 흐름속에 헤여져 수십년 세월 생사조차 알지 않았던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얼싸안은 감격적인 상봉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명산 금강산과 고려의 옛 수도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의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였다.

또한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여 전세계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지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거창한 통일시대는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셔버

리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6.15통일시대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절절한 민족애가 낳은 사랑과 축복의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졌던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루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마련하시어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애국헌신의 무수한 날과 달들을 우리 겨레는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정녕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겨레에게 남기신 최대의 통일유산이며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어버이장군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태양절경축열병식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리던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지난해 3월 북남쌍방이 총부리를 맞댄 최대열점지역인 판문점을 찾은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날 수령님의 통일선필비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대에 조국통일성업의 길에 용약 펼쳐나갔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북남공동선언의 혜택으로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겼다.

청춘도, 운명도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업에 아낌없이 바쳐온 우리들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펼쳐지는 통일애국의 새시대를 격동속에 바라보고있다.

조국통일의 리정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추켜들고 온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6.15의 도도한 흐름은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며 우리 조국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것이다.

비전향장기수 이재룡

##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던 날의

### 한 피 출

주제 89(2000)년 6월 13일, 평양비행장은 손에 손에 휘날리는 사람들의 환영일색을 이루고있었다. 민족분열 55년만에 이제 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위해 남측의 대통령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평양상봉의 나날 화기에 애환 동포애의 정이 흐르는 연회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석상에서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문초안을 보시고 남측수뇌분도 선언문 초안을 보고 동의를 표하며 공동선언이 합의되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의 제의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그럼 좋다고 하시면서 연탁 앞에서 그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드시였다. 그러시고는

### 한 가 족

환송오찬때였다. 평양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주신 장군님께 깊은 사의를 표하고난 남측 수뇌분은 문득 그이께 어디 김씨인가고 묻는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주 김씨》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어느덧 비행기가 착륙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따듯이 영접 하시였다. 그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남조선의 한 출판보도물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보여준 따뜻한 정서성, 환대와 수고, 준비와

### 《 출 언 료 》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었음을 알린다고 하시였다. 순간 장대에서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감격의 그 순간을 미처 촬영기에 담지 못한 기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안타까운 속내를 헤아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배우역을 해달라라고 호방하게 웃으시고는 그러면

노력은 국제사회의 국가수반및외교와는 비교할수 없는 진한 괴롭힘의 효음이요, 최고의 영예이었다.》라고 전하였다. 서방의 언론들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비행장영접은 대단한 전례없는 일》, 《그동안 기자들이 썼던 예측기사를 여지없이 뒤엎는 파격》이라고 대서특필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과 남이 합의하여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런 것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뤄나가기에 한다.

《출언료》를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시자 장대에는 다시금 웃음바다가 펼쳐졌다.

일가가 만났다고 하시며 다시금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후로 남쪽에서는 《전주 김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서 태를 문은 사람들속에서 이따하게 퍼졌고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에 있는 《전주 김씨》의 시조 태서공의 묘는 일약 유명해졌다 한다. 본사기자

## 공동선언리행은 북남관계개선의 기초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발표 13돐을 맞으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갈 염의에 촉망되어있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위해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과 남이 합의하여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런 것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뤄나가기에 한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런 것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뤄나가기에 한다.

도 우리 민족을 대신할수 없다. 사대외세와 외세의존이 땅의 길이라 는것은 력사에 의해 실증된 진리이다.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에 한다는것을 밝힌 10여년간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의의깊은 나날들이었다.

력사적인 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처며 각급에서 이룩된 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지침으로써는 자주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6.15의 기치따라 활력있게 전진해온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닦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일기는 더 한층 고조되었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밝힌 실천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지난 10여년간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의의깊은 나날들이었다.

력사적인 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처며 각급에서 이룩된 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지침으로써는 자주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6.15의 기치따라 활력있게 전진해온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닦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일기는 더 한층 고조되었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한

대결과 전쟁책동에만 매여달린데 있었다.

말로만 선언준동을 운운하고 행동을 달려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대결상태를 벗어날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북과 남의 겨레모두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북남관계의 초석이며 조국통일의 기지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해나갈 때 북남관계가 겨레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옹바로 발전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실현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력사적업무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리현숙

### 조선통일의 력사적리정표

#### 방글라데슈신문 기념글 게재

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었다.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지금까지 13년전 평양에서의 6.15북남공동선언발표는 조선민족의 통일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경제협력사업들이 활기를 띠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잇달아 진행되어 조선민족의 통일지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상봉이 련이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통일운동은 남조선보수세력들의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엄중한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조선민족뿐아니라 전세계가 지지하고 환영하는 조선통일의 리정표이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본사기자



그리고 소중한것이 아니라면  
없어도 살수 있는것이라면  
이대지도 사무치게  
목매여 불러보라  
아, 6.15

13번째 6월을 맞으니  
더욱 그리고 간절한 6.15시대  
그 시대가 년년이 흘러왔다면  
이해의 6월은 얼마나  
통일의 환희와 열기로 끓어번  
지랴

어느 한시도 잊지 않았노라  
분렬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 열어놓은  
6.15  
민족이 힘합쳐 공동번영 이룩해  
가던  
우리 민족끼리 그 나날들을

그때처럼 그 나날처럼  
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절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마음  
속엔  
통일의 벽찬 감각 펼쳐가던  
6.15의 추억이 불러오르거니

겨레의 가슴 깊은 곳에서  
피눈물을 다 퍼내주었노라  
불신과 대결의 두려운 열음장  
일시에 녹여주었노라  
우리 민족끼리 그 시대는

# 시 추억은 통일을 부른다

김래룡

래여나 반백이 다 되도록  
한번도 어머니라 불러 못본 자  
식이  
처음으로 어머니라 부르며 안긴  
6.15 너는  
다시 찾아준 혈육의 정이었고

꿈에서만 올라보던  
백두산상에 남녘의 겨레 오르고  
지도에서만 짚어보던  
부산과 광주로 북녘의 동포 찾  
아가는  
그 뜨거운 자욱이 새겨진  
6.15 너는 분계선 없는 삼천리  
였다

만나면 낯선이 따로 없어  
얼굴 맞부벼 통일노래 함께 부  
르고  
마음 터치면 뜻과정이 통해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하늘가에 통일이기도 함께 띄웠  
노라

잊을수 없어라  
5월의 풍라도에 올려피드린  
북남로동자들의 우렁찬 합성  
서로 만나 통일의 씨앗  
마음속에 함께 심어가던  
북남의 농민들 열기던 그 모습

들이  
작가들은 백두의 산상에 올라  
《통일문학의 새벽》 열었더라  
6.15 너는 무대에서  
체육인들은 주로에서  
노래 불러 발을 맞춰 한마음 되  
었더라

지금도 귀진엔 쟁쟁하구나  
기나긴 분렬세월  
하나의 강도를 동강냈던  
그 원한을 철조망 걸어내고  
피출처럼 뻗어간 철길우에  
드높이 올려간 통일철차의 기적  
소리

그리고 오가고싶던  
한지역 한강도로  
이제는 마음껏 달릴수 있게 되  
었다는  
그 목메인 호느낌과도 같은 기  
적소리는  
그대로 통일의 힘찬 메아리

땅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려져  
7천만 우리 겨레가  
분렬을 잊고 하나로 산 통일  
시대

뵈아보지 못한 땅 없었노라

떠오르는 아침에도 함께 맞이  
하며  
서는 별도 함께 바라보며  
하나된 강도 하나의 조국에서  
다같이 모여살 통일의 래일  
그러  
날과 달 환희로 설레던 6.15세  
월이어

민족이 오매불망  
간절히 소원한것 통일이라면  
그 통일에 살게 한 6.15  
고향이 그리고 그 혈육이 그림다면  
그 고향과 혈육을 다 찾아준  
6.15

피눈물을 흘리며 수십년 분렬  
세월  
그토록 겨레가 갈망한 모든것  
다 안겨준 고마운 6.15의 해발  
그 해발이 얼마나 소중한것인지  
우리 민족끼리의 날과 날들은  
말해주거니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통일환희에 겨워 살아보았기에  
6.15세상이 얼마나 좋았던지  
가슴저리도록 느껴는 겨레

6.15가 준 추억은

하나도 버릴것이 없어야  
하기에 온 겨레는 말하지 않았  
던가  
떨어진 못살고 잃고서도 못사는  
6.15는 민족의 생명이라고  
6.15에 살면 통일  
6.15를 버리면 분렬이라고

그렇게 궁지눌고 보람찼던  
6.15의 세월을 산 사람들이  
물노니 그 나날이 그리워  
가슴애투운지도 그 몇년째  
6.15는 다시 오지 못할 추억이  
란 말인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6.15의 추억은  
지나온 과거에 묻어들수 없고  
지울수도 빼앗길수도 없는  
겨레의 지향 통일의 래일

일어서라 겨레여  
추억으로만 새겨볼수 없고  
그리움으로만 불러볼수 없는  
귀중한 우리의 6.15  
그것을 살리고 더더욱 빛내는  
길에  
과감히 도도쳐 일어서라

이제 다시

한형제 한동포의 진심 나누던  
가슴에  
싸늘한 불신  
대결의 칼을 박아서는 안되거늘  
손을 잡고 가슴을 맞대자  
홍금 러놓고 진정을 나누자

통일의 명산 금강산  
그 구룡연과 삼일포에서 다시  
만나자  
멈춰선 기대의 동음  
다시 개성의 하늘에 올려피지  
게 하자  
기다림에 애라는 혈육들의 가  
슴에  
뜨거운 상봉의 눈물 흐르게 하자

만나면 뜻을 합치지 못하랴  
뜻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 있  
으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도  
다름아닌 우리 겨레의 손에 달  
려있거니

분렬의 치욕과 수치 가세내고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안아온  
몽겨진 겨레의 억세인 힘이 있다  
두려운 대결의 열음장을 녹여낸

하나된 민족의 뜨거운 심장의  
열이 있다

그 용솨음치는 힘이 있는 한  
6.15를 가로막은  
비극의 그 빗장인들 못 제껴버  
리랴  
그 뿔뿔 끊은 열이 있는데야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지 못  
하랴

락엽진 거목은 눈서리를 없는  
대도  
뿌리가 있어 또다시  
푸르른 아지 펼쳐듯이  
6.15의 추억 그 억센 뿌리 있어  
삼천리엔 통일의 푸른 숲 펼쳐  
지리라

추억속에 그리움이 있고  
그리움속에 추억이 있다 하였  
지만  
6.15의 추억속엔 래일의 희망  
있고  
래일의 희망속엔  
백배의 신념주는 6.15추억이 있  
거니

오, 민족이 힘을 합쳐  
기어이 이 땅우에 안아올  
통일강성국가  
추억은 통일조국의 미래를 부  
른다  
통일의 래일 불러 추억은 불러  
오른다

## 6.15를 살리는 《밀알》이 되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  
표 13돐을 맞는 우리는 격동  
적이고 환희롭던 지난 시기  
를 돌아켜보게 된다. 지금으  
로부터 13년전 유서깊은 평  
양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북  
과 남의 수뇌분들의 상봉이  
마련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  
택되었다.

### 6.15공동선언 발표 13돐 기념강연회 진행

6.15공동선언 발표 13돐 기  
념강연회가 4일 일본 도쿄에  
서 진행되었다.

### 공동선언리행, 조국통일실현을 주장

남조선의 6.15, 10.4국민  
련대가 5일 서울에서 6.15공  
동선언발표 13돐기념모임을  
가지었다.

### 6.15공동선언 발표 13돐을 맞으며 통일거기대회를 진행하는 남조선인민들



발걸음을 내디디었다.  
북과 남의 그리스도교인들  
도 북남교회에 힘을 합쳐 일  
떠세운 봉수교회에서 서로서  
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라  
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따  
라 《6.15공동선언리행과 평  
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회》  
를 열고 뜻과 마음과 정성  
을 모두어서 기도를 드리던  
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 자주권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절실한 요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날로 약탈해  
지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  
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  
키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  
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  
로 나선다.

### 자주권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절실한 요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날로 약탈해  
지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  
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  
키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  
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  
로 나선다.

명 주님의 뜻이 아니며 우  
리 민족이 바라는것은 더우  
기 아니다. 이런 부조리한  
력사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차집고 맹맹한 분위기를  
가시고 환희롭던 6.15를 되  
찾는 실천행에 나서자는 겨  
레의 요구에 부응함은 우리  
교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 자주권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절실한 요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날로 약탈해  
지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  
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  
키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  
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  
로 나선다.

### 자주권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절실한 요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날로 약탈해  
지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  
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  
키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  
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  
로 나선다.

## 사 진 으 로 보 는 6 . 1 5



## 자주권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절실한 요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날로 약탈해 지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날로 약탈해 지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본사기자 최광혁



# 북남당국 회담을 파란 시킨 괴뢰 패당의 도발적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회대변인 담화

내외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열리게 되었던 북남당국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란책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말았다.

보도원바와 같이 북과 남은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북남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모처럼 열리게 된 북남당국회담에서 성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의있는 준비를 갖추고 평양을 출발하려던차에 남측으로부터 이번 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차관으로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남측이 처음부터 장관급회담을 주장하고 실제로 통일부 장관을 내보낼 의향이라고 몇번이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수석대표를 아래급으로 바꾸어 내놓는 놀음을 벌인것은 북남대화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으로서 부패무도의 극치이다.

우리는 판문점전략통로를 리용하여 남측이 부당한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와 같은 장관급 수석대표가 나오도록 할데 대해 거듭 요구하였으나 《남북문제를 협의해결할수 있는 당국자는 통일부 차관》이라고 강변하면서 저들의 부당한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였다.

뿐만아니라 도리어 우리측 대표단 단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라느니,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느니, 《상식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느니 등으로 참을수 없이 험담하였다.

이러한 도발로 하여 북남당국회담이 도저히 성사될수 없게 되었으며 그로하여 우리 대표단은 부득불 서울에 나가있는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남측의 요구는 한마디로 저들의 통일부 장관의 상대는 북의 통일전선부장이며 통일전선부장이 회담대표단 단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무식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한낱 괴뢰행정부처 장관파워와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는바이다.

더우기 북남대화사가 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지금까지 우리측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공식 당국체화마당에 단장으로 나간것은 한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괴뢰패당은 실무접촉때부터 우리측에서 회담단장으로 누가 나오느냐를 신경쓰면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댔을뿐아니라 아예 우리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이름을 저들 합의서 초안에 북측대표단 단장으로 박아넣는가 하면 지어 개성공업지구 잠정중상도독하는 칭포무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측이 불손하기 그지없는 도발행위에 대해 되게 문제시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남측실무접촉 수석대표라는자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한것이 아니라 말뭉치 하면서 귀주명을 찾다가 결국은 제가 한 망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회담의제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남측은 6월 6일에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놓고서도 6.15와 7.4발표일공동기념문제, 민간배양과 접촉, 협력사업문제는 의제에 밝히지 않았고 양말을 부리였는가 하면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개문제도 저들의 합의서초안에 《정상화》와 《재개》라는 표현을 빼고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려 하였다.

남측의 이러한 악랄한 방해책동과 고의적인 파란책동으로 하여 불과 한두시간이면 충분히 타결을 볼수 있었던 실무접촉이 16시간동안이나 지속되어 다음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결속되게 되었으며 그에서 채택된 합의문건이라는것도 온전한 합의가 못되고 불완전한 발표문형태로 공표되게 되었다.

이 모든것은 남측이 애당초 대화의지가 없을뿐아니라 북남당국회담에 마치못해 끌려나와 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회담장에를 조성하면서 지연시키고 파란시키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측이 저들의 통일부 차관이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수 있는 고위인사라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그우의 통일부 장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그가 허수아비란 말인가.

더구나 통일부가 아무 권한도 없는 꼭두각시, 《못가지》에 불과하다는것은 청와대에서 대화를 제기하라고 하면 하고 자르라고 하면 자른 허수아비노릇을 한 사실이 잘 말해준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도 통일부에서 나온 남측수석대표는 합의문건의 토 하나 수정할 권한도 없어서 서울의 지령을 받느라 2시간, 3시간씩 지체하였다.

그러한 통일부일진대 그 주장도 아닌 아래의 차관이나 나와서 과연 무엇을 우리와 혼합할수 있단 말인가.

괴뢰패당이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권능이요 급이요 뭐요 하고 시비하고있는데 대해 말한다면 이번에 북남대화과 관련한 과격적인 증대립장을 천명할것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특별담화문이며 지난 시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모든 성명, 담화들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명실공히 북남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한 공식기관으로서 굳이 그 권능과 급에 대해 남조선통일부와 비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

우리는 지난 시기 북남상급회담 단장으로 내각 책임장관의 명의를 가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1부국장을 내보냈으며 서기국 부국장이 남조선통일부 차관과를 상대하여왔다.

이번에는 그대도 남측당국의 체면을 세워주느라 1부국장도 아닌 국장을 단장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무지무식을 그대로 드러낸것이 아니라 회담을 파란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으로써에 따라 붙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회담단장 급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괴뢰패당이 당국회담을 대결적목적에 악용하려던 기도가 뜻대로 실현될수 없게 되자 회담을 깨버리려고 한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괴뢰패당은 우리와 당국회담을 공식 협의해놓고는 뒤에서 《기대를 가지지 마라.》느니, 《회담이 열리면 북의 책임을 따질것》이라느니 뉘니 하는 등으로 찬물을 끼얹는 언동을 일삼았는가 하면 한쪽에서 실무접촉을 하는 때에 괴뢰회에서는 우리의 최고지도부에 대한 《원절타격》을 운운하는 도발적폭언까지 튀어나왔다.

남측은 우리가 회담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 대범하게 아량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회담도 실무접촉도 다 남측지역에서 하자고 우겨댔을뿐 아니라 협의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당국회담날짜를 지난 시기에 비해서 구멍이 1박 2일로 바로 잡고 회담일정을 회의장에 국한시켜 누구도 만날수 없게, 동포애의 정을 나눌수도 없게 하였다.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화해와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것을 대결과 적대의 관점에서 대하고 회담까지 대결의 마당으로 만들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이번에 나타난 괴뢰패당의 무례무도한 도발행위에서 앞으로 당국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문제토의가 제대로 되겠는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나갈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괴뢰패당이 옛 《유신》시대에 새막던 《대화있는 대결》이나 리명박역도가 내뿜던 《원칙고수론》에 배껴들려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며 그로부터 차려질것은 선인자들과 똑같은 비참한 운명뿐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남의 눈치를 보며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화해와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것을 대결과 적대의 관점에서 대하고 회담까지 대결의 마당으로 만들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이번에 나타난 괴뢰패당의 무례무도한 도발행위에서 앞으로 당국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문제토의가 제대로 되겠는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나갈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괴뢰패당이 옛 《유신》시대에 새막던 《대화있는 대결》이나 리명박역도가 내뿜던 《원칙고수론》에 배껴들려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며 그로부터 차려질것은 선인자들과 똑같은 비참한 운명뿐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남의 눈치를 보며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화해와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것을 대결과 적대의 관점에서 대하고 회담까지 대결의 마당으로 만들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이번에 나타난 괴뢰패당의 무례무도한 도발행위에서 앞으로 당국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문제토의가 제대로 되겠는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나갈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괴뢰패당이 옛 《유신》시대에 새막던 《대화있는 대결》이나 리명박역도가 내뿜던 《원칙고수론》에 배껴들려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며 그로부터 차려질것은 선인자들과 똑같은 비참한 운명뿐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힘에 의거하여 북남대화를 판데로 끌고가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이런자들과 마주앉아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갈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떠들지만 그것이 이전 《정권》의 대결정책과 한치도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틀라하고있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북남당국회담이 무산된것과 관련하여 괴뢰패당이 기자회견이요 뭐요 하며 형식수술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추악한 대결적정책과 회담파란책행이 드러내려 바빠있는자들의 구차한 변명이고 껌변이다.

우리는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시킨 괴뢰패당의 도발적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국회담을 입이 닳도록 간청해온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아량과 관용을 악용하며 대화마당을 또 하나의 대결판으로 만들어 하고있는데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그러한 무위한들과는 더이상 상충하지 않것을 요구 하고있다.

우리는 북남당국회담에 털끝만 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

괴뢰패당은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시켜 온 거세를 실망시키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을 죽움과 비난속에 몰아넣는 죄행에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이번 사태가 북남관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남조선동족대결세력의 망동으로 북남당국회담이 무산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하나의 사실을 통째서도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이 온 세상에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말이 《신뢰》이지 사실상 이름만 다른 리명박의 대결정책의 북사판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한 불신과 대결의 《프로세스》이다.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를 굴종으로 비하하면 국민자존심에 상처를 주는것 뿐이다.

이것은 북남당국회담을 무산시킨 당국의 오만무도한 처사를 개탄하여 남조선정계에서 울려나온 말들이다. 모처럼 마련됐던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시킨 장본인인 현 당국에 대한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비발치듯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오그라수르째도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이번 사태가 북남관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그들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본사기자 한영수

# 대화국면을 가로막은 반통일대결행위

지난 12일부터 13일사이 북남사이에는 모처럼 대화기회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과묵에 처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공화국의 대범하고 성의있는 조치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발에도 말미암아 6.15의 소중한 성과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 마지막 유산마저 말살위기에 놓여 있는 참혹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삼천리강산에 조국통일의 기운이 뜨겁게 차

올려진 6.15시대를 잊지 못해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겨레의 통일열망을 반영하여 공화국이 취한 애국의 대결단이었다.

공화국은 회담장소와 날짜도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도록 대범한 제의를 하였다. 남측이 실무접촉도 판문점 남측지역에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하여 그들의 주장대로 대표단을 분리

선을 넘어 내보냈다. 한마디로 과묵에 처한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해 거듭 양보를 해가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동족의 이러한 동포애적인 선의와 아량을 악용하여 북이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 억지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고 회담의 급과 판례에도 맞지 않는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므로써 회담성사의 절호의 기회를 날려보내는 망동을 저질렀다.

회담에 누가 나오느냐, 어쩌니 하며 아래웃럭도 없이 사대질만 일삼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망동은 초보적인 회담의례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무례의 극치인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심술이 뒤들려 통일부 차관을 남측 수석대표로 내세우므로써 모처럼 마련된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으로 몰아갔다.

회담의제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남측은 6월 6일에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은 했지만 애당초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고 불신과 불협화음의 행위를 야기하여 그 무의미로써도 용서할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모처럼 찾아온 북남당국회담의 기회를 차버림으로써 온 겨레를 실망시키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을 죽움과 비난속에 몰아넣은 오늘의 엄청난 내외적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재반 사실들은 《당국대화 우선》을 그토록 입이 닳도록 외우는 남조선당국에 애당초 북과 대화할 의지가 없물만큼 없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북남당국회담에 마치

못해 끌려나왔지만 문제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파산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쳐주고 회담을 파란시키려고 갖은 비열한 책동을 다 매달았다.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간절한 열망을 짓밟고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으로 몰아넣은 오늘의 엄청난 내외적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모처럼 찾아온 북남당국회담의 기회를 차버림으로써 온 겨레를 실망시키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을 죽움과 비난속에 몰아넣은 오늘의 엄청난 내외적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재반 사실들은 《당국대화 우선》을 그토록 입이 닳도록 외우는 남조선당국에 애당초 북과 대화할 의지가 없물만큼 없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북남당국회담에 마치

못해보고 무산되고만 사태를 두고 온 민족이 회담개최를 파란시킨 남조선당국의 너절한 처사에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청와대와 《국회》마당에서 《과거에 해왔던처럼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북의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느니,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없다.》느니 하는 따위의 동에 닿지 않는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회담을 파란시킨데 대한 안팎의 비난에 얼마나 바빠났았으면 회담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굴종》타령을 늘어놓겠는가.

그렇다고 회담을 가로막은 저들의 죄악이 가리워질수는 없다.

이번에 《굴종과 굴욕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말은 남조선의 친미보수당국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이전 민주 《정권》들을 빗대어 《보탈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라며 자기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은 바른

이번에 북남당국회담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과 보수언론들은 그것이 현 집권자가 내놓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실행할 첫 단추》니 뉘니 하며 마치 무엇을 할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회담은 무산되었고 겨레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다시 바뀌었다.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 원래 신뢰라는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신뢰를 말하면서 자기부터 상대를 덮어놓고 불신한다면 언제가야 신뢰가 이루어질수 없고 화해가 있을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리치이다.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정세가 전쟁국면으로 치달은것이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실험도 마구 짓밟고 대조선압살책동에 발광해온 미국과 그에 적극 추

대로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미국을 해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온갖 굴종과 굴욕을 운명처럼 감수해오면서 동족앞에 서면 승냥이처럼 대결광기를 드러내놓아온 괴뢰의 누구인가. 바로 지금과 같은 친미보수 《정권》들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굴종에 의해 남조선 사람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먹어야 하고 미군의 대대

대로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미국을 해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온갖 굴종과 굴욕을 운명처럼 감수해오면서 동족앞에 서면 승냥이처럼 대결광기를 드러내놓아온 괴뢰의 누구인가. 바로 지금과 같은 친미보수 《정권》들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굴종에 의해 남조선 사람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먹어야 하고 미군의 대대

대대로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미국을 해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온갖 굴종과 굴욕을 운명처럼 감수해오면서 동족앞에 서면 승냥이처럼 대결광기를 드러내놓아온 괴뢰의 누구인가. 바로 지금과 같은 친미보수 《정권》들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굴종에 의해 남조선 사람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먹어야 하고 미군의 대대

대대로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미국을 해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온갖 굴종과 굴욕을 운명처럼 감수해오면서 동족앞에 서면 승냥이처럼 대결광기를 드러내놓아온 괴뢰의 누구인가. 바로 지금과 같은 친미보수 《정권》들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굴종에 의해 남조선 사람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먹어야 하고 미군의 대대

대대로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미국을 해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온갖 굴종과 굴욕을 운명처럼 감수해오면서 동족앞에 서면 승냥이처럼 대결광기를 드러내놓아온 괴뢰의 누구인가. 바로 지금과 같은 친미보수 《정권》들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굴종에 의해 남조선 사람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먹어야 하고 미군의 대대

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박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증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본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남측에 유리하게 양보할것은 다 양보해주었다.

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순도 없다.

순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일단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신뢰의 싹도 움트겠는데 황당한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며 쌍방이 회담탁에 마주앉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도대체 신뢰를 위한것인가.

이번에 남조선동족대결세력의 망동으로 북남당국회담이 무산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하나의 사실을 통째서도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이 온 세상에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말이 《신뢰》이지 사실상 이름만 다른 리명박의 대결정책의 북사판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한 불신과 대결의 《프로세스》이다.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를 굴종으로 비하하면 국민자존심에 상처를 주는것 뿐이다.

이것은 북남당국회담을 무산시킨 당국의 오만무도한 처사를 개탄하여 남조선정계에서 울려나온 말들이다. 모처럼 마련됐던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시킨 장본인인 현 당국에 대한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비발치듯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오그라수르째도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이번 사태가 북남관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그들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본사기자 한영수





### 심판대에 오른 남측의 《대화지》

이번에 남측당국이 북남당국회담을 고의적으로 파란시키려고 얼마나 비열하게 돌아섰는가 하는것은 회담의제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설명된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접촉때 남측은 본회담에서 할 회담의제를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이번 실무접촉에 얼마나 성의를 기울이지 않았는가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남측은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 《신뢰》를 쌓아나가지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도 본회담에서 북남관계의 포괄적인 문제를 협의하고자 하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답변하면서 회담을 파란시킬 흉계를 드러냈다.

그들이 가지고나온 합의서 초안이란것도 그가 막힌 것이었다.

원래 회담에서는 쌍방이 자기측에서 만든 합의서 초안 같은것을 서로 교환하고 그에 따라 합의내용을 조율하는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남측은 자기들이 만들어진 합의서 초안에 본회담에서 협의 해결할 문제를 《개성, 금강

산, 리산가족상봉》이라고 써넣는 등 북남당국간 합의서의 초보적인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하는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성문화되지도 않은 초안이라는것을 대충 만들어 제출하는 등 매우 무성의하게 돌아왔다. 이것이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는것인지 아니면 완전폐쇄시키자는것인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것인지 하지 말자는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남측은 실무접촉과정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문제에서 《정상화 및 재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나 넣지 않으려고 회피하다가 북측의 거듭되는 요구에 마치 못해 발표문에 박아넣었다.

그러나 6.15 및 7.4발표일 공동기념문장과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문제는 북측이 주도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회피하였다. 이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남측의 태도와 자세를 잘 보여주는것이다. 한마디로 남측은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할 진정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현 남조선 당국자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북남합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없이 어떻게 신뢰를 말할수 있는가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있다.

만일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리라면 현 남조선 《정부》가 출현하여 첫 6.15북남공동선언기념일인데 외면할 까닭이 없다.

6.15를 대하는 판결과 입장. 그것은 현시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에 내외의 기대를 모았던 북남당국회담이 처참하게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으며 여전히 《정권》과 다른것을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관과하게 되었다.

《국》으로 포장된 대결정책이 초래할것은 민족에게는 재난이요, 남측 현 당국에게도 자기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길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12일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남조선통일부 장관은 회담파란의 책임을 북에 넘겨주면서 그 무슨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동》이라느니 뉘니 하였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느니, 《북남관계도 국제적기준을 따라야 한다》느니 하는것이 그것이다.

회담파란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열리게 되었던 이번 회담이 최악의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북측은 생사기로의 운명에

놓여있는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 기업가들과 금강산관광객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흠이 낀 가족 친척들의 절절한 상봉원원을 고려하여 대담한 자세에서 당국회담을 제의하였으므로 그 실현을 위해 성의

가 있었으면 웬만한 회담파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뉘우치는것이 옳아 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파란으로 몰아간

은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회담을 이리저리 비틀다가 끝내는 열리지도 못하게 한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게라도 할 말이 없다.

남조선당국이 겨레를 우롱하면서 북남당국대화마저 저들의 불순한 대결목적으로 악용하고있지만 북의 대담성과 야망을 나약성으로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은 얼마전 북남당국회담에 필할만 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를 볼것은 남측기업가들과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이라는것을 토포로 알고 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그랬으면 웬만한 회담파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뉘우치는것이 옳아 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파란으로 몰아간

## 궁색할 책임회피 늘음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남측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실무회담때부터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성의 없이 나오다가 그 누구도 야단할수 없는 당국자가 아닌 《당국자》를 고집해 나섬으로써 끝내는 회담을 파란으로 몰아갔다.

충은 처사인가.

지금 당국회담이 파란되었다는 소식이 접한 많은 사람들은 느끼는 실망과 분노같은 이렇다 말할수 없는 정도이다.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관객자들과 금강산관광객자들은 《개성공단정상화를 위해 남북회담을 손잡아 기다리

장본인들이 책임을 느낄 대신 그 무슨 《진통》이니, 《국제적기준》이니 하며 오술을 퍼워대는것이 한쪽의 망심도 없는 과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하여 여겨의 운명이나 어떻게 되든 북을 압박하고 고립시켜 《체제통일》의 어려서

부정시하는것이야말로 앞으로 이 기관과 일체 마주앉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면 남조선의 동족대결광신자들은 앞으로 도대체 누구와 마주앉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대화를 영영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고 지금의 동족대결정책을 무한정 지속시키겠다는 궤변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실로 이가 갈리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평양시 평전구역 간성동 김동은

이번에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남측의 요구대로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원래 일이 제대로 되었다면 본회담의 의제와 규모, 날짜 등을 정하는 판문점실무접촉은 복잡할것도 없고 한나절이면 충분히 끝나갈 것은 접속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쉽게 끝날것이라고 예상했던 실무접촉은 무려 밤을 새워가며 16시간을 돌돌안이나 진행되었다. 거기에 들어간 시간은 총 16시간, 대표단원이 참가하는 두차례의 전체회의를 내놓고 양측 수석대표들끼리 마주앉아 진행한 접촉수만도 무려 8차, 북남회담력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오전 일찍 시작한 실무접촉이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3시 40분까지

《마라손회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북남대화의 판례를 뒤엎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남측의 너무나 무례한 요구 때문이었다.

북은 어떻게 하나 수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북남당국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넓은 야망을 보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최대한의 자재력을 발휘하였으나 남측은 도저히 접수를 못할 황당하고 그릇된 억지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끝내 회담을 파란시키고야 말았다.

판문점에서 한초한초 긴장하게 흘러간 16시간,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대화를 바라고 누가 대결을 원하는가를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게 한 16시간이었다.

본사기자 명금룡

남조선의 야당의원들이 보다 못해 《제정신인가》, 《당국자회담 포기하는것》이라며 격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남조선의 야당의원들이 보다 못해 《제정신인가》, 《당국자회담 포기하는것》이라며 격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남조선의 야당의원들이 보다 못해 《제정신인가》, 《당국자회담 포기하는것》이라며 격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북남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되고말았다.

이번 회담파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대화를 달가와하지 않는 현 남조선당국에 있다.

북남당국대화 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회담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회담을 앞둔 남조선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가.

북이 대화제를 한 다음날인 7월 남조선군부초전세력들은 《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벌여놓고 《북의 도발에 확고히 대비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였는가 하면 그 무슨 《맞춤형억제전략》에 대해 운운하면서 외세와의 군사적공조에 더욱더 매여달릴 기도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회담과는 별개로 《북인권법》을 계속 추진하겠다》이라고 하면서 범람없는 대결시보를 드러냈다. 《북인권법》이라는것이 《인권》의 미명하에 북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기 위한 대결악법으로서 그것이 북남관계에 끼칠 엄청난 후과때문에

야당의 반대배격에 부딪히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하여온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대결책안을 모처럼 대화가 무르익어가는 때에 《계속 추진하겠다》라며 소동을 떨쳐내려는 것이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것은 《국회》무대에서 공화국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원점타격》이니 뉘니 하는 도발적언론이 서슴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이 과연 대화를 하자는 행동인가. 대화가 아니라 북남대결을 계속하고 전쟁도 서슴지 않겠다는 반명화, 반통일행위들인것이다.

남조선의 야당의원들이 보다 못해 《제정신인가》, 《당국자회담 포기하는것》이라며 격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남조선의 야당의원들이 보다 못해 《제정신인가》, 《당국자회담 포기하는것》이라며 격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앞에 다가왔던 북남당국회담이 너무나 뜻밖에 무산된 소식이 온밤 잠을 이루수 없었다. 어떻게 마련된 회담인데, 얼마나 오래간만에 다시 열리게 된 회담인데... 알고보니 그것은 남조선대결광신자들의 망심으로 빚어진 비극이었다.

이번에 그들은 우리측 대표단장에게 대해 갖은 험담을 다 하였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권능이 어떻소, 굶이 어떻소 하면서 갖은 중상모독행위를 다했다고 한다. 무례하기 짝이 없고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하는 극도의 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공화국에서 명실공히 북남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한 공식기관으로 알려졌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북남대화과 관련한 각종 성명, 담화, 중대립장 등을 들으며 통일일거를 드높여온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이번엔 내외가 찬양한 북남당국대화과 관련한 공화국의 폭넓고 대

남한 제의가 담긴 특별담화문도 바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6.15시대에 세상을 놀래웠던 북남관계에서의 획기적인 변화와 기적같은 현실들도 대부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나서서 남측의 통일부와 합의하여 기록한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이 어떨다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북남관계를 주관하는 북의 공식기관인데 《권능》이요, 《급》이요 뉘오 하며

대화를 영영 안하겠다는 선언

앞에 다가왔던 북남당국회담이 너무나 뜻밖에 무산된 소식이 온밤 잠을 이루수 없었다. 어떻게 마련된 회담인데, 얼마나 오래간만에 다시 열리게 된 회담인데... 알고보니 그것은 남조선대결광신자들의 망심으로 빚어진 비극이었다.

지금 은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공화국의 나아진 청소년들을 유인람치하여 강제로 남조선으로 끌어가려다가 적발된 인신매매가건들의 인권유린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종교의 탈을 쓴 인신매매 거간꾼들은 수시명의 공화국의 청소년들을 유괴람치하여 비밀은신처에 가두어놓고 종교교육과 함께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사회주의체제를 중상모독하고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는 세뇌교육을 알람하게 들어있으며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로 때려가 버리는 처용수 등 극혹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는 국제사회의 눈길을 피해 비밀취로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려고 획책하였다.

이러한 랑치행위에 남조선의 재외대표부가 나서서 위조

《새누리당》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북남대화의 판례를 뒤엎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남측의 너무나 무례한 요구 때문이었다.

북은 어떻게 하나 수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북남당국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넓은 야망을 보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최대한의 자재력을 발휘하였으나 남측은 도저히 접수를 못할 황당하고 그릇된 억지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끝내 회담을 파란시키고야 말았다.

판문점에서 한초한초 긴장하게 흘러간 16시간,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대화를 바라고 누가 대결을 원하는가를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게 한 16시간이었다.

본사기자 명금룡

한 유인, 랑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체제대결을 위한 각종 행위들을 합법화하기 위한것이다.

그런 불순한 대결악법이 남조선 《국회》에서 끝내 좌천되던 이번엔 적발된 인권유린행위들을 포함한 반공화국모략수동이 더욱 로골적으로 벌어지게 될것이다.

남조선에서 집요하게 벌여지고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수동은 《인권》의 간판밑에 공화국을 모해하여 관수에 배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무모한 망정이다.

남조선 각계 《북인권법》조작이 반드시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한것은 우연치 않다.

남조선의 《새누리당》은 《북인권법》조작책동이 불려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생 각해보고 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반환된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도를 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환경부가 지난 4년동안 조사한 17개 반환기지중 16곳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심한 곳은 기름에 의한 오염이 기준치의 무려 85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는 오늘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의 수많은 노란사지와 같은 땅들을 팔라 군사기지로서 타고앉아 마구 오염시켜 황폐화시키고는 또다시 새 땅으로 미군기지를 전환하는것과 같은 과렴치한 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러다보니 남조선의 방대한 토지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오염으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은

반환된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도를 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환경부가 지난 4년동안 조사한 17개 반환기지중 16곳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심한 곳은 기름에 의한 오염이 기준치의 무려 85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는 오늘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의 수많은 노란사지와 같은 땅들을 팔라 군사기지로서 타고앉아 마구 오염시켜 황폐화시키고는 또다시 새 땅으로 미군기지를 전환하는것과 같은 과렴치한 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러다보니 남조선의 방대한 토지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오염으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얼마전 통산미군기지에서 제기된 기름류출사건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2001년 서울 통산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류출이 발견된 후 12년이 흐른 오늘도 류출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은 계속되고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별로 세워지지 않았고, 아니 대책을 세울수도 없었다. 오염원인을 밝히자면 통산미군기지 주변을 조사해야 하지만 남조선 강점 미군당국이 이를 거부하고있기때문이었다.

밝혀진대 의하면 통산미군기지의 오염된 지역의 면적은 최소한 1만 2235㎡에 달하며 이를 복구하는데 지금까지 든 돈은 58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토양뿐아니라 물도 오염되

환경 파괴의 주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얼마전 통산미군기지에서 제기된 기름류출사건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2001년 서울 통산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류출이 발견된 후 12년이 흐른 오늘도 류출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은 계속되고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별로 세워지지 않았고, 아니 대책을 세울수도 없었다. 오염원인을 밝히자면 통산미군기지 주변을 조사해야 하지만 남조선 강점 미군당국이 이를 거부하고있기때문이었다.

밝혀진대 의하면 통산미군기지의 오염된 지역의 면적은 최소한 1만 2235㎡에 달하며 이를 복구하는데 지금까지 든 돈은 58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토양뿐아니라 물도 오염되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통산미군기지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러하니 남조선전역의 모든 미군기지들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그 피해를 줄이려면 과연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야 되었는가 하는것이다.

미군에 의한 피해는 비단 환경오염만이 아니라.

년중 그칠새없는 북침을 노린 각종 군사연습으로 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가 학악과 전쟁연습에 끼여 찢어지고 인민들은 폭음과 소음으로 마음편할 날이 없으며 미군에 의한 살인 과 폭행, 강탈을 비롯한 온갖 불법무법의 범죄로 온 남조선이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다.

참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쳐주고 있는 고통과 재난을 다 짚자면 끝이 없다.

본사기자 서희

### 파쇼독재 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

남조선에서 파쇼독재자이며 살인마인 전두환역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추진사회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두환역도의 죄악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도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추정문제를 검찰이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논의하며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경호를 중지시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도 파쇼살인마의 처벌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투쟁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민주화운동단체들은 서울 연회관에서 부정부패범죄와 관련한 추정금남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주주의

와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자들이 전두환과 로태우역도에 대한 부당한 경호를 중지하고 공안당국이 시급히 조사에 착수할것을 요구하였다.

5.18력사의폭저지국민행동은 5월 30일 결성식에서 남조선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파쇼독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간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어떤 두 너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생육을 당한 때로부터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다 아는바와 같이 2002년 6월 13일 남조선강점 미2사단 공병대소속 병장 위커 마크를 비롯한 미군살인마들은 경기도 양주군에서 동무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가던 14살 난 녀중학생들인 신호순, 심미선을 장갑차로 깔아뭉개는 야수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가슴속에 품었던 회망과 꿈을 꽃피워보기도 전에 강점군의 장갑차무한체도에 목숨을 빼앗긴 나 어린 호순이, 미선이.

수습에 달하는 장갑차에 짓이겨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였던지 《하늘 땅도 눈을 감고 호곡한다.》고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전했다.

참으로 이 사건은 피에 주린 야수, 인간살육에 환장한 미군살인귀족만이 저지려는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오만무례한 남강도들이 고의적으로

벌린 살인참극이었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의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에 격분하여 《민족자주》, 《미군살인자 처벌》, 《〈한〉 미행형정개정》, 《미국반대》 구호를 웨치며 반미초콜라다로 남조선전역에 돌렸었다. 3000여명의 단체와 각계층 시민 연 500만여명의 참가하여 벌어진 반미초콜라투쟁은 남조선에서 반

서 총을 쏘아대며 랑들을 부린 사건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군을 보면 물서리고 소름끼친다.》, 《저런 미군 보지 않을 날은 언제일가.》 하는 말이 하나의 류형으로 퍼지고있겠는가. 이것이 오늘날 미군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이다.

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에 의해 미군범죄자에게 대한 처벌은 겨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2008년부터 2012년사이 미군범죄는 공개된것만 해도 2000건에 달하였지만 구속된 경우는 불과 한두건에 지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각계 《미군가두는건 하늘의 별따기》라

선은 매해 거의 2억US\$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사실들은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는 한 인민들이 미군에 의해 당하는 불행과 고통, 재난이 가시여질수 없다는것을 토포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단체들과 인민들도 《미군범죄의 근본적해결방안은 남조선미국 《행정협정》(SOFA)개정이 아닌 미군철폐가 답》이라며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만행을 자행한 미군은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강도가 집안에 있으면 장수인들이 발전장을 잘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민을 일삼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없애고 수처스러운 예측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본사기자 리광성



미기운을 더욱 크게 고조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었으며 미군이 남조선에 강점하고있는 한 인민들에게 차베질정은 고통과 불행뿐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군은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에 대한 집단구타사건, 지하전동차안에서 20대녀성에 대한 성추행사건, 서울 한복판에

## 끝장내야 할 미군범죄의 력사

미기운을 더욱 크게 고조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었으며 미군이 남조선에 강점하고있는 한 인민들에게 차베질정은 고통과 불행뿐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군은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에 대한 집단구타사건, 지하전동차안에서 20대녀성에 대한 성추행사건, 서울 한복판에

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은 커녕 해마다 남조선인민들의 형세로 마련된 천문학적액수의 유지비를 당기고있다는 그것이다.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 미군유지비 부담률을 현재 42%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높일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미군주둔비용에 관한 특별협정》이 체결될 경우 앞으로 남조

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은 커녕 해마다 남조선인민들의 형세로 마련된 천문학적액수의 유지비를 당기고있다는 그것이다.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 미군유지비 부담률을 현재 42%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높일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미군주둔비용에 관한 특별협정》이 체결될 경우 앞으로 남조

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은 커녕 해마다 남조선인민들의 형세로 마련된 천문학적액수의 유지비를 당기고있다는 그것이다.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 미군유지비 부담률을 현재 42%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높일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미군주둔비용에 관한 특별협정》이 체결될 경우 앞으로 남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 주제 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

### 제 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제 1조** (경제개발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제 2조** (경제개발구의 정의와 유형)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농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제 3조** (관리소속)에 따른 경제개발구의 구분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경제개발구와 중앙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기업의 위원회가 한다.

**제 4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 주관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는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제 5조** (투자자에 대한 특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가는 투자자에게 토지이용, 노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 특별한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6조**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분)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분과 첨단과학기술부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분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 7조**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다.

**제 8조** (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 9조(적용범위)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제 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 10조** (경제개발구의 창설 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제 11조**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 원칙)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 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5. 제 12조(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에 따른,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자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6.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7. 제 13조(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에 그 정형통지) 다른 나라 투자자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려 할 경우 자기 나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며 그 정형을 우리 나라 해당 기관에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통지를 하지 않는다.
8. 제 14조(지방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 제출)
9. 지방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10. 제 15조(중앙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 제출)
11. 중앙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12. 제 16조(련관기관들과 합의)
13.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기업위원회에 제기하기 전에 련관중앙기관들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14. 제 17조(경제개발구의 창설)
15.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기업위원회가 한다.
16.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기업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련관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 18조(경제개발구의 창설 공포)
18.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제 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제 19조** (경제개발구의 개발 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제 20조** (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자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

**제 21조** (개발구법에 대한 승인)

개발구법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구법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22조** (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총체계획과 세부계획은 지역국토건설총체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총체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하며 세부계획의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 23조** (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 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4조** (토지임대차계약)

개발구법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해당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25조** (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 26조** (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자와 함께 개발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 때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제 2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 와 이설비용부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제 28조**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정해진 때 따라 하부구조,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 수 있다.

**제 29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임대가격)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지양할 수 있다.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 30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 31조** (경제개발구관리기관)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 수 있다.

**제 32조** (경제개발구의 관리 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 보장
3.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례의 참고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회
6.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회
7.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작성
2.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 유치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4.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회
6. 경제개발구의 세부관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 34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직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 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문건의 작성 및 심사
3.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 35조** (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

### 원으로 구성하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책임자는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을 주관한다.

**제 36조** (관리기관의 사업 내용)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조직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입허가
4.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6.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7.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8.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예산편성 및 협조
9.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0.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11.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회의 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 제 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제 38조** (기업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자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39조** (수속절차의 간소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은 기업창설과 관련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같은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 40조** (기업등록과 법인 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업의 지사, 사무소는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 41조** (로력의 채용)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동행정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42조** (종업원 월로임 최저기준의 제정)

경제개발구 종업원의 월로임 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 43조** (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

### 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44조** (기업의 회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회계관련법규에 준하여 한다.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 45조** (기업소득세율)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율의 14%로, 장려하는 부분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율의 10%로 한다.

**제 46조** (류통화폐와 결제 화폐)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

**제 47조** (외화, 리율, 재산의 반출입)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율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어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 48조** (지적소유권의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49조** (관광업)

경제개발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자는 정해진 때 따라 관광업을 할 수 있다.

**제 50조** (인원, 운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자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단,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1조** (유가증권거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정해진 때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52조**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시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시간에 해당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 53조** (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4조** (채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특혜)

### 투자자가 리율을 채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채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분에 채투자할 경우에는 남부한 채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 55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56조** (특혜관세제도과 관세 면제대상)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증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자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57조** (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낸다.

**제 58조** (통신보장)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제 59조** (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60조**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 61조**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 62조** (세관에 의한 분쟁 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세관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제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 사회를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다.

하긴 소우리면 어쩔수 없이 소우리 커머러처럼 어떤 말인가. 옛날처럼 쫓박자구 동냥다니지 않는것만도 다

### 행한 일이지. 그런데 성수가 석사논문을 그만두었다는것은 무슨 골만같은 소린가?

그런데 뭐?!...소우리라면 그래도 덩치가 큰놈이 틀고 앉았듯이 널찍하기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나 비좁아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울만 한 자리조차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말이 비슷한 같기도 하다. 한류 소처럼 사는 이 지근우의 삶터는 아니다. 그것도 영틀리는 않는다. 이 어둠을 짓누르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부담앞에 언제 한번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귀 기울일새도 없었다. 단지 저 자기만의 판매창으로 소고기 사러오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으로 이